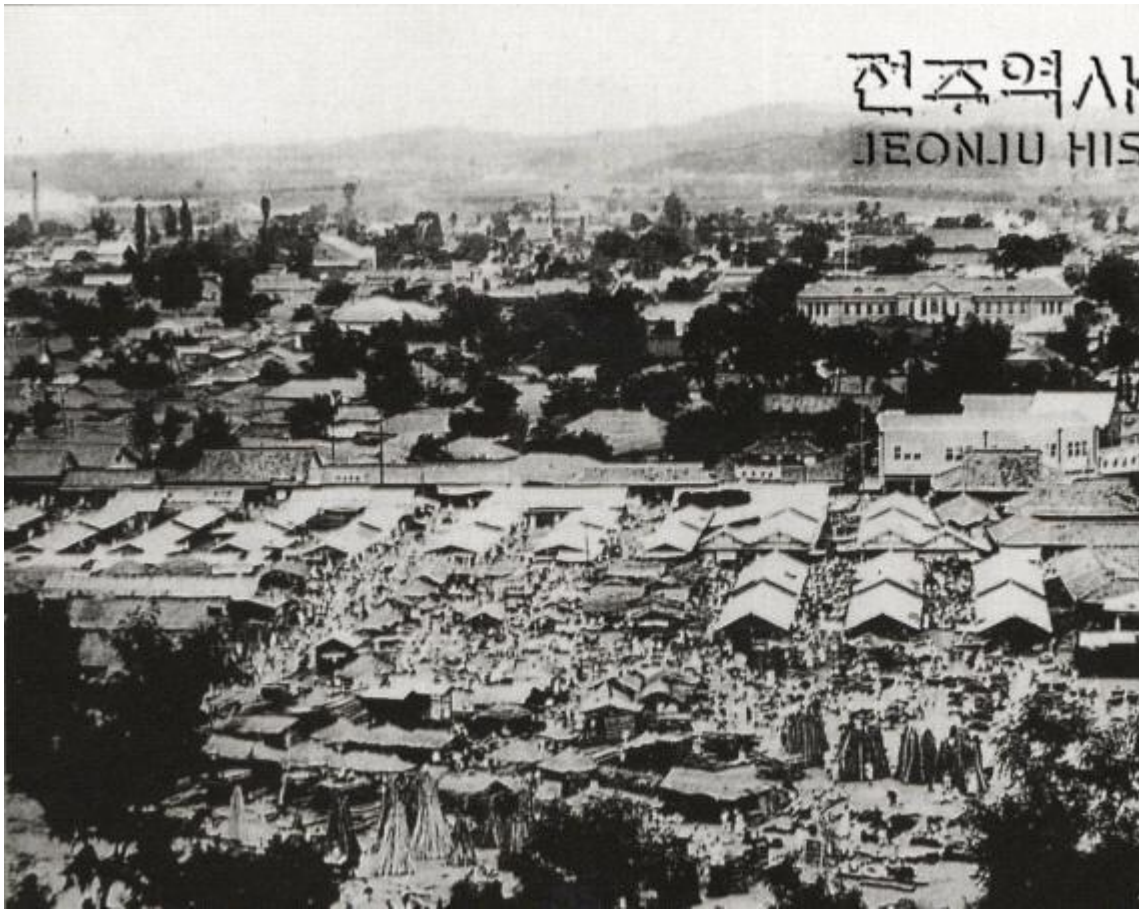

남문 밖 시장 ‖ 1930년경 ‖ 『日本地理大系』(1930) ‖ 『옛 사진 속의 전북』(1998)에서 재인용 ‖ A20-0083

곤지산(현 시립도서관) 자리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오른쪽 가운데 보이는 것이 풍남문이고 그 뒤쪽 중간쯤에 나무로 둘러싸인 길쭉한 건물이 전라북도청이다. 앞쪽의 사람들이 움집한 곳이 전주 남문 밖 시장이다. 일제에 의해 정기시장인 보통시장(1호시장)으로 다시 태어난 남부시장의 모습으로, 천변을 따라 형성된 장터가 이곳으로 집중 통합관리된다. 남부시장은 1968년 시작된 근대화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.